

천리마 시기 소설의 현대성과 천리마 기수의 전형 창조

김진아*

|| 차례 ||

1. 들어가며
2. 창조적 노동과 '속도전'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 의지
3. 긍정적 모범을 통한 계급 자각과 혁명 임무에 대한 책임감
4. 인간 개조를 통한 공산주의적 교양의 실천
5. 나오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천리마 시기 소설에서의 현대성과 천리마 기수의 형상화 문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천리마 시기, 문학에서도 천리마 운동은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했다. 1960년 11월 27일, 김일성은 「천리마 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라는 교시를 통해 천리마 기수의 모습을 올바르게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시기 작가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업은 항일혁명투쟁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을 창조하는 일이었다. 천리마 기수들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을 창조하는 한편, 온갖 낡은 것들과 투쟁하였다. 또한 인민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 교양하며 노동계급의 긍정적인 모범이 되었다.

천리마 기수를 형상화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대성을 구현하는 일이었다. 현대성은 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전제로 한다. 천리마 시기의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작업은 도식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이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된다. 이에 작가들은 당이 주도하는 현지 과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민들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러한 노력은 전변하는 천리마 현실과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을 창조하는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었다. 한편, 현대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이 시기 북한 문학에서는 실화나 미담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이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나 기록의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환경과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여 예술적 진실성을 확보해야만 했다. 따라서 천리마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천리마 기수의 전형을 창조하는 문제는 이 시기 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천리마 운동, 천리마 기수, 현대성, 전형, 도식주의, 긍정적 모범, 인간 개조, 공산주의적 교양

I. 들어가며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는 전후 복구와 함께 사회주의 제도 확립을 위한 강력한 사상통제를 실시한다. 특히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당 지도부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쇄신과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내세우며 천리마 운동을 발기한다.¹⁾ 천리마 운동은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당의 총 노선인 동시에 인민들의 감정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생활이념이었다. 즉, 경제 성장 뿐 아니라 혁명전통 교양, 당 정책 교양, 계급 교양, 공산주의 교양 등을 부단히 강조하는 사상 부문의 혁신운동으로서의 기능까지도 병행²⁾하는 광범위한 대중운동이었다.

특히 3차 당 대회(1956. 4. 23~29) 이후 문학에서도 천리마 운동은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한다. 1960년 11월 27일, 김일성은 「천리마 시대에 맞는

1) 김일성은 천리마 운동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천리마 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적극 분자로 만드는 하나의 공산주의의 교양운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양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밀고 나가게 하는 공산주의적 전진운동입니다.” (『김일성 저작집』, 제22권, 261면, 이명재 편,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1015면에서 재인용.)

2)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스타하노프운동』 및 『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70면 참고.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라는 교시를 발표한다. 그는 문학·예술이 천리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며 천리마 시대에 맞는 새 생활을 창조하는 영웅들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응당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 있는 우리 인민의 이 위대한 창조적 생활을 힘있게 형상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천리마시대 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 투쟁 모습을 그려야 하며 그들의 힘과 염원을 뚜렷이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김일성 저작집』, 제14권, 445면.)³⁾

천리마 시기, 작가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작업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을 창조하는 일이었다.⁴⁾ 1930년대 김일성을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정신은 당과 인민의 유일한 전통이었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통해 공산주의의 전형으로 간주되었다. 그가 살아 온 방식은 새로운 시대의 공산주의적 교양과 직결되었으며 이는 천리마 시기 노동 계급의 투쟁과 정열의 원천이기도 했다. 천리마 기수들은 철저한 당적 인간이자 견결한 공산주의자들이었다.⁵⁾ 그들은 생

3) 박종원·류만 공저, 『조선문학개관(하)』, 인동, 1988, 197면에서 재인용.

4) 김일성은 천리마 기수들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시한다. “<...> 천리마 기수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류레없이 빠른 속도로 전변시키는 영광스러운 선구자들이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공산주의의 광명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진진하는 우리 당의 붉은 전사들입니다.”(강능수, 『우리 시대 주인공들에 대한 생각』,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6, 94쪽.)

5) “공산주의적 인간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문명한 인간이며 그 정신 세계가 무한히 다양하고 풍부한 인간이다. 따라서 인민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형성시키는 공산주의 교양은 사상적 교양인 동시에 도덕적 교양이며 미적인 교양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문학이 공산주의 교양자의 높이에 올라 선다는 것은 생활에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들을 그 성격과 내면 세계의 풍부성으로써 다면적으로 묘사하며 개성적 면모를 가진 생동한 형상으로 전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엄호석, 『공산주의적 교양과 창작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59. 8, 114면.)

활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을 창조하는 한편 보수주의와 소극성, 신비주의와 보신주의 등 온갖 낡은 것들과 투쟁하였다. 또한 인민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 교양하며 노동 계급의 긍정적인 모범이 되었다.⁶⁾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건설에 나서고 인민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천리마 기수를 형상화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대성을 구현하는 일이었다.⁷⁾ 현대성은 시대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당대의 혁명과 인민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문학의 시대적 복무 정신이었다. 이 시기, 현실의 진실한 반영을 전제로 하는 현대성은 도식주의나 기록주의와 같은 낡은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와 함께 논의되면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⁸⁾ 전변하는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생동감 있게 반영하는 것은 당의 정책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었다. 이에 작가들은 당이 주도하는 현지 파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민들과

6)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천리마 기수의 전형에 대한 안함광의 지적은 중요하게 살펴볼 만하다. “<…>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주름잡는 사회주의 건설자로서의 풍모가 나타나야 하며 로동 속에서 단련된 새 인간의 본질이 뚜렷하여야 하며 시대의 영웅으로서의 사회 개조자적 정열과 창조적 성격이 반영되어야만 한다.”(안함광, 『천리마적 현실의 반영과 전형화의 특성』,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9, 175면.)

7)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무엇보다 사실주의로서 자기 시대의 인간과 생활의 묘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매 시기마다 생활이 제기하는 자기의 과업을 해결하려는 현대성을 자기의 내적 속성으로 하고 있다. <…> 현대성의 개념은 공산주의 리상의 견지에서 생활적 문제를 침투하는 사실주의 작가들의 사상적 탐구가 생활의 요구와 결합되는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현대성은 자기 시대의 문학의 중심 과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엄호석, 『생활의 요구의 높이에서』,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12, 100면.)

8) 1956년 '8월 종파사건'과 2차 작가대회 이후 문학에서의 도식주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아울러 1958년 10월 김일성은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일 데 대하여」에서 '부르쥬아 작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모든 책임은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작가들에게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기된 것이 작가들의 현지 체험을 통해 작품에서 현대성을 구현하는 일이었다.

의 연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문제는 당 정책에 맞는 천리마 기수의 전형을 창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창작 조건을 지키는 것이었다.

생활은 바로 우리의 당 정책이 구현되어지는 구체적인 마당이다.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근거하여 인민들의 근본적 리익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당 정책은 근로 대중의 생활 속에서 위대한 역량으로 생활을 개변하여 전진시킨다. 작가, 예술인들은 생활을 관찰, 연구할 때에나 선택되어진 생활 현상들을 평가 묘사할 때에나 항상 철두철미 당 정책의 견지에 서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 이러한 견지에서만 작가들의 생활 체험은 확고한 당적 견지로 하여 생활을 옳게 전형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철학을 발견할 줄 아는 고귀한 능력과 결부될 것이다. 또 이러한 견지에서만 작가들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대중을 혁명 위업으로 고무하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시대의 영웅인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을 구체적이며 개성적이며 감성적인 형상으로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⁹⁾

이러한 점에 입각해 볼 때, 김병훈의 『《해주-하성》서 온 편지』, 권정웅의 『백일홍』, 리운영의 『진심』은 천리마 시기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천리마 기수의 전형을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할 것이다. 첫째, 문학에서 노동 주제를 통해 급변하는 현실과 사회주의 건설 투쟁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작품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앞장서는 천리마 기수의 전형과 그들이 표출하는 창조적 노동의 근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둘째, 인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문학에서는 그들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현실적인 인물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다. 작품을 통해 평범한 인물이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스스로의 임무에 최선을

9) 편집부, 『4차 당 대회가 제시한 문학 예술의 강령적 과업』(권두언),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10, 8~9면.

다하는 모습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셋째, 인간 개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천리마 시기 문학에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낙후된 인간을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 주인공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인간 개조의 노력이 내포하고 있는 시대적 의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2. 창조적 노동과 ‘속도전’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 의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완전히 청산되고 사회주의 경제가 유일하게 지배하게 된 시대에 참된 인간의 가치는 오직 창조하는 노동 가운데서만 빛날 수 있다는¹⁰⁾ 주장은 천리마 시기 동안 계속해서 강조되었다. 천리마 운동은 문학의 현대성을 조건 짓는 중요한 생활 현상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현실 속에서 낡은 것은 새 것에 의해 부정되고, 새 것은 또 다른 새 것에 의해 낡은 것이 되었다. 천리마 기수들은 낡은 것과 투쟁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투사들이었다. 따라서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을 창조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작업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주의 건설 속도를 앞당기게 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었다.¹¹⁾

10) 리상태,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탐구와 새로운 인간 성격의 창조』,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3, 130면 참고.

11)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전형 창조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도처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천리마의 대진군이 버려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동하게 묘사하며 시대의 영웅인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을 창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작가 예술인들은 이 보람찬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여 우수한 문예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대중을 혁명 위업에로 고무하는 데 적극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편집부, 『4차 당 대회가 제시한 문학 예술의 강령적 과업』(권두언), 7면.)

김병훈의 『《해주-하성》서 온 편지』(1960. 4)는 해주와 하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철도 공사를 단 75일 만에 끝낸 청년동력대원들의 열정과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천리마 시기 젊은 세대들의 당을 향한 충성, 창조적 노동 과정, 집단주의, 동지애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술자인 ‘나’는 동생 명희와 그녀의 동료인 서철성의 관계를 통해 희망찬 공산주의의 미래를 전망한다. 명희는 고중 졸업 직후 대학 진학 대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도 관리국의 통신국 교환수가 된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녀는 해주-하성 간 철도 건설 현장에 지원하여 가게 된다. 명희는 그곳에서 만난 동료 서철성을 알아가는 과정과 그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의미있는 경험을 편지 형식으로 서술한다.

서철성은 ‘조국해방전쟁’ 참전 군인이자 공대 진학을 앞둔 청년이다. 그는 전쟁 후 금강산 휴양소에 머물다가 철도 관리국 산하 청년결기대회 소식을 듣고 무작정 해주-하성 철도 건설 현장으로 오게 된다. 그는 대학 진학을 먼저 고려하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철도 건설에 참가한다. 서철성에게 해주-하성 간 철도 건설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 작업이었다. 건설 현장은 전쟁 시기 그의 소대원들이 희생된 곳이었다. 그들에 대한 미안함과 원수에 대한 증오의 감정은 서철성에게서 노동에 대한 열정과 투지를 이끌어 내는 힘이 된다.

서철성을 비롯한 천리마 기수들은 서로 협력하여 난관을 이겨 나간다. 그들은 “최단기간 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¹²⁾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인다. 그로 인해 ‘도적 작업’이나 ‘책벌 취침’까지 등장하게 된다.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듯했다. 그러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읍천교’ 교량 공사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철성은 고민 끝에 전쟁 당시 ‘매화

12)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제와 문예이론』, 역락, 2001, 124면.

산 전투'에서 소대장에게 배운 원리를 이용해 '석비레 블록'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한다. 그의 노력으로 인해 '읍천교' 공사는 한달 가량을 앞당겨 완성되었고 그들은 '불굴의 리수복 돌격대'라는 칭호까지 받게 된다. 천리마 진군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 과정이었고 속도의 문제는 사회 전반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모든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당의 지도에 따라 '우주 속도'로 달려야만 했다. 그 결과 그들은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매 순간마다 놀랄만한 기적을 창출해 낼 수 있었다.

<...> 바로 우리 당에 의해 교양 받은 우리들은 공상가들이야요. 아직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대담한 공상가들도 꿈꾸지 못 한 어마어마한 꿈을 가진 공상가들이지요.

적어도 우리 당은 이 땅 우에다 락원을 세우자는 게 아닙니까! 이러한 당의 아들딸들인 우리가 자기 일생 동안에 꼭 지구 우에 완전한 공산주의를 만들어 놓구야 말겠다고 꿈꾸는 것을 허황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만큼 우리는 자기 일생에 해야 할 일이 옛사람들 일생 일의 백 배 천 배로써도 재일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도 천리마를 타고 해주-하성 삼 년 길을 한 달 반이라는 《우주 속도》로 달리는 거야요. 제일 빠른 천리마! 우리 시대에 이보다 더 큰 영광으로 불리우는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¹³⁾

서철성이 '조국해방전쟁'에서 겪은 체험들은 그의 삶에서 기적을 창조하는 바탕이 된다. 그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대원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실현하지 못한 사회주의 건설 임무를 자신이 대신 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며 끊임 없는 도전과 노력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의 창조적 노력과 도전은 사회주의 건설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전투이자 투쟁이었다.

이후 서철성의 돌격대는 '5만산' 폭파를 위한 도항 굴진 작업에 파견된

13) 김병훈, 『《해주-하성》서 온 편지』,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0. 4, 44~45면.

다. 이 작업은 5만 입방의 흙을 헐어 내어 철도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좁은 굴의 흙을 담아내는 작업이 난관에 직면하여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게다가 서칠성은 또 다시 대학 추천을 받게 되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5만산’은 전쟁 당시 그의 소대원들이 목숨을 잃은 곳이었다. 그는 소대원들을 생각하며 ‘5만산’을 뿌리 뽑기 전에는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다고 다짐한다. 결국 서칠성은 대학원서를 제출하는 대신 ‘자동 버럭 운반기’를 개발해 내어 작업을 기일보다 앞당겨 완수한다.

<…> 오빠,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조국 땅 그 어딘들 선렬의 피가 스미고
 நீ이 깃들지 않은 데가 있겠어요. 그 이들은 어머니 조국 땅을 그러안고 죽을
 때 녀원했을 거야요. 그들이 다 살지 못 하고 바치는 생을 우리 후대가 물려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그 이들의 꿈과 리상이, 그 휘황한 미래에 대한
 설계가 우리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입니다!¹⁴⁾

<…> 그러나 칠성동무는 어떤 사람입니까. 칠성동무는 조국의 번영과 후
 대들의 행복과 락원을 쟁취하는 싸움에서 우리 인민과 우리 당이 치르어 낸
 커다란 고통들과 아픈 상처와 모든 희생들을 함께 치르었으며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쟁취한 오늘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온
 몸, 온심장으로 감득하고 있는 동무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인 방금이라도 《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들도 없는 조국을 위하여 바칠》 준비까지 되어 있는
 참다운 우리 시대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는 무서울
 게 없으며 못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나는 칠성 동무는 걸 보기와
 달리 꾀 있고 총명하고 머리가 좋은 동무라고만 생각했지요. 과연 꾀와 총명
 이 인간의 모든 것이겠습니까!¹⁵⁾

14) 위의 글, 54면.

15) 위의 글, 54~55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명희는 서철성이 어떤 사람인지 완전하게 이해하게 된다. 서철성은 이 시기 노동계급의 대표였으며 천리마 기수의 전형이었다. 그녀는 서철성의 의지와 능력에 감동하여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다. 명희는 평탄한 길을 걷지 않겠다는 자신의 계획이 공명심과 허영에서 비롯된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사회와 모든 사람들의 운명 속에서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명희는 서철성을 통해 참된 생활이 무엇인지,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느끼기 시작한다.

명희와 서철성은 이제 “붉은 노을 피는 공산주의 지평선까지 한 쌍의 매처럼 억세게 나래쳐 나아 갈”¹⁶⁾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된다. 창조적 노동 속에서 형성된 이들의 동료애는 사회주의 건설 투쟁을 촉진하는 공산주의 도덕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3. 긍정적 모범을 통한 계급 자각과 혁명 임무에 대한 책임감

천리마 기수들은 인민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데 있어 모범이 되는 인물들이었다. 천리마 기수를 문학 작품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김일성은 “문학 예술의 위대성은 한 사람의 새 인간을 반영함으로써 수만의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¹⁷⁾고 하며 전형 창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따라서 작가들은 당이 제기한 혁명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들의 영웅적인 성격과 정신적인 특성을 묘사하는 데 주력해야만 했다.

2차 작가대회에서의 도식주의 논쟁 이후 작가들은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 창작에 몰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천리마 기수들

16) 위의 글, 56면.

17) 엄호석, 『천리마 운동과 창작 정열』,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1, 86면.

의 영웅적 위훈의 결과에 현운된 나머지 거기에만 매어 달리고 그 영웅적 위훈을 낳기까지의 위대한 인간 정열과 창조적 탐구의 복잡한 정신적 과정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고”¹⁸⁾ 있다는 비판에 시달린다.

아울러 이 시기, 실화를 소설화한 작품들이 빈번하게 창작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현실에 밀접한 주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들을 작품화 하는 과정에서 주제를 예술적 형식 속에 구현하지 못하여 단순히 현실 재현의 수준에 그칠 경우, 신문 기사나 오체르크(ocherk)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¹⁹⁾ 결국 작품에서 주제 의식이나 예술적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전형화나 사건의 일반화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뒤따라야 했다.²⁰⁾

권정용의 『백일홍』(1961. 9)은 실화를 다룬 소설 중 비교적 좋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낙석감시원 현우혁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인물이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낭림산맥의 239 제표지구는 낙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다. 초소 근무에서 가장 큰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연장해서 근무지를 지킨다. 또한 당의 지원도 마다하고 동료의 부재로 인해 생긴 업무들까지 자발적으로 처리한다.

현우혁의 성격은 부정적인 인물인 두일과 대조적으로 형상화되면서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다. 240제표지구의 낙석감시원인 두일은 감시원이라

18) 위의 글, 87면.

19) 김하, 『생활과 주제』,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4. 3, 79면 참고.

20) 당시 『조선문학』에는 실화나 미담을 작품화 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실려 있다(김하, 『생활과 주제』, 1964. 3, 로금석,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 창조와 작가의 시대적 감각』, 1962. 1, 리상태, 『생활과 랑만』, 1962. 3, 박태민, 『단편소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작가적 노력』, 1961. 10, 방연승, 『천리마 기수의 형상화에서 거둔 몇 가지 문제점』, 1963. 2, 안함광, 『천리마적 현실의 반영과 전형화의 특성』, 1961. 9, 최일룡, 『실화 문학에 대한 생각』, 1961. 9, 황건, 『소설가의 립장에서』, 1962. 12).

는 직업의 단조로움을 탓하며 항상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병을 핑계로 보름이 넘도록 복귀하지 않다가 결국 일을 그만 두게 된다. 독일의 성격은 천리마 시대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존재였다. 모두가 천리마의 속도로 진군하는 시대에 어떤 이유로든 작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했다.

한편, 현우혁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전재(戰災) 고아 영호는 과거 이 지역 선로감시원의 아들이다. ‘조국해방전쟁’ 시기 선로감시원이었던 영호의 아버지는 현우혁이 호송하던 포탄열차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한탄을 안고 순직하였다. 현우혁은 제대 후 그의 뜻을 이어받아 자진하여 이 초소에 오게 되었고 고아가 된 영호도 찾아서 키우게 되었다.

현우혁이 투철한 직업 의식과 책임감을 보이는 이유는 투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계급에 대해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긍정적 자질을 계승한 천리마 기수였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낡은 존재들과 투쟁한다. 김일성을 선두로 한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 시기 그의 동료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국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염원은 영예 군인인 그를 끊임 없이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

내 다리야, 너는 내 사정을 잘 알지? 참아다오. 참아야 해, 미제가 조국강토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우리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 너는 전쟁 시기의 여기 늙은 감시원을 기억하고 있지? 폭탄을 안고 걸어간 그 이 다리를 알지 않나. 그렇게 너두 싸워야 한다. 참아다오...²¹⁾

저주로운 분계선 패말을 탕탕 찍어 던지고 무너지고 쑥대가 된 길로 자란 철’뚝을 다시 쌓아 올려 끊어졌던 철’길을 맞이어 놓을 제, 언덕에 섰

21) 권정웅, 『백일홍』,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9, 106면.

올라 푸른 신호기를 번쩍 쳐들면 만포발-부산행 열차가 막 쏜살같이 달려 나가리라...²²⁾

아내 금녀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남편의 결정에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 남편의 잦은 전근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점차 깊은 산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예전에 그녀가 꿈꿔 오던 행복을 모두 버려야만 했다. 그녀는 지나치게 고지식한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다. 천리마를 타는 것, 혁신을 일으키는 것, 창의 고안을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 다친 몸을 이끌고 굳이 산속으로 들어와 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 금녀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다.

영호의 잦은 지각을 의심스러워했던 금녀는 등교하는 영호를 미행한다. 그녀는 영호의 지각 이유를 알고 매우 놀란다. 영호는 매일 학교에 가기 위해 25리가 넘는 길을 걸어야 하지만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철길을 점검하고 나서야 학교에 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이 느끼고 실천하는 것을 자신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던 금녀가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은 과로를 한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하면서부터이다. 남편 대신 기차 통과 신호를 하게 된 그녀는 줄음을 이기지 못해 신호를 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기게 된 것이다. 이 일로 금녀는 남편에게 노동당원의 아내답지 못하다는 호된 비판을 듣는다.

인민앞에 죄를 지었소. 규률을 위반했소.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달리는 열차에 내가 부레끼를 걸었소...

22) 위의 글, 107면.

우리에게 맡긴 일이 비록 적고, 보잘것없고 벅찬 일이 아니라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중요한 것이요. 열차가 1초 더디게 달린다는 것은 그 만치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 속도가 지연된다는 것이나 다름 없소. 그렇다면 임무 초소가 산이건 물이건 지어는 바다 속이건 가릴 것이 없소... 그런데 당신은 즐고 있었다니...

당신은 감시원의 안해답지 않소. 로동당원의 아내답지 못하단 말이요...²³⁾

이 일을 계기로 금녀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이후 모범 선로원 회의에 참석한 남편 대신 일하게 된 금녀는 이전과 달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시집을 때 어머니께 물려받은 치마로 깃발을 만들어 직접 위험지역에 꽂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굴러 떨어지는 돌을 몸으로 막으며 열차의 정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녀는 당을 위해 실천하고 조국을 위해 노동하는 천리마 시대의 인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목숨으로 지켜낸 철길이다. 휘황한 공산주의 래일을 향해 온 나라가 이 길로 련결되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리를 절며 이 길을 걷는 것은 한 로동당원이 이 선로를 떠맡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 영호 친아버지는 가슴으로 이 철길을 받들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나도 침묵 밑에 깔린 자그마한 한 개 돌처럼 되어야 한다.²⁴⁾

천리마 시기의 긍정적인 인물인 현우혁은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그는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기억하며 자신의 목표와 계급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이처럼 현우혁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일에 대한 원칙은 금녀를 감화시키고, 영

23) 위의 글, 110면.

24) 위의 글, 114면.

호를 미래의 혁명 세대로 만드는 기초가 된다. 평범한 선로 감시원에 불과한 그는 혁명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계급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

4. 인간 개조를 통한 공산주의적 교양의 실천

천리마 시기의 인간 개조 문제는 전 당적, 전 사회적 관심사²⁵⁾였다. 이는 한 인간의 의식, 사상 체계를 바로잡는 문제이며 한 인간의 운명 문제를 해결²⁶⁾하는 일이기도 했다. 매 순간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천리마 시기에는 새 것과 낡은 것 간의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때 현대성은 새 것과 낡은 것 사이의 투쟁에서 승리한 새 것, 즉 긍정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인민이 이상적인 새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인물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들을 당과 노동계급의 사상으로 이끌어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역할을 맡아야만 했다. 따라서 작가들은 공산주의자의 구체적인 전형을 창조하여 인민들을 개조하는 문제에 대해 몰두하게 된다.²⁷⁾

리운영의 「진심」(1961. 9) 또한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²⁸⁾ 기계 직

25) 박태민, 「단편소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작가적 노력」,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10, 101면.

26) 위의 글, 101면.

27) “사람들을 공산주의 사회에 적용되게 사상과 성격, 재능과 개성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발달된 인간으로 형성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사는 혁명 투사로 교양하는 과업을 떠나서 우리 문학을 생각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교양, 그것은 우리 문학의 기본 내용으로 되고 있다.”(엄호석,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를 위하여」,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59. 11, 107면.)

28) 박태민은 이 작품에 대해 사건 발전에 있어 긴박성의 부족이나 디테일의 남용 등 몇 가지 결함을 지적하면서도 “인간 개조를 인정 세계에서 묘사하지 않고 당성, 계급

장의 선동원 리주렬은 선반공 량승춘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주위 동료들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량승춘의 사상과 생활을 변화시키려고 애쓴다. 전쟁 시기 고아가 된 량승춘은 매사에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과하여 리주렬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다. 량승춘에게 사고, 오작(誤作), 지각, 결근, 이직 등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최근 찾아진 량승춘의 무단 결근을 걱정하던 리주렬은 량승춘이 몰래 운전을 배우러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량승춘은 언제부터인가 자동차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는 뜻을 자주 내비쳤다. 현재의 직장은 따분하고 통제가 심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이 청산된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은 당의 지도 아래 무한히 발휘될 수 있었다. 리주렬은 량승춘이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극복하고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우선 리주렬은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량승춘이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돌봐준다. 또한 전쟁 때 헤어진 누나를 찾아 주기 위해서도 애쓴다. 무엇보다도 리주렬은 량승춘이 공산주의적 교양과 투쟁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타이른다.

부모의 원수는 안 갚겠는가? 미군놈들이 아직도 분계선에서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소. 동무의 생명을 노리고 ... 그런데 동무는 오늘 무슨 짓을 했나? 비겁해, 비겁, 또 한 번 생각해 보자구, 누가 동무를 싸 안아 주고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끝끝한 일군으로 키워 냈소? 당이지?! 수령이지?! ... 그런데 동무는 무슨 보답을 하고 있나? 피병으로? 결근으로? 사고나 오작으로? ... 깊이 깊이 생각해 보라구.²⁹⁾

성의 원칙에서” 묘사하여 미답이 갖는 전형화의 문제를 일정 부분 극복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박태민, 『단편소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작가적 노력』, 104~105면 참고).

29) 리윤영, 『진심』,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9, 125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량승춘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량승춘은 리주렬의 노력을 ‘몰귀신’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시집살이’를 지겨워할 뿐이다. 어느 순간 리주렬은 자신이 내세운 원칙과 동료애가 일방적인 것이며 따라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그는 시당 위원장의 말을 떠올리며 계급적으로 복잡한 인간들도 변모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량승춘과 같은 훌륭한 본성을 가진 인간을 개조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진실하더라도 시대의 지향과 맞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감화를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량승춘을 개조하는 것은 낡은 것과의 투쟁이자 혁명 수행의 과업이었다.³⁰⁾ 더욱이 이러한 과업은 부정적인 잔재를 척결하고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따라서 리주렬은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량승춘을 개조해야만 했다.

그가 락후하게 된 원인을 구명하고 계속 공격해야 합니다. 원칙과 진정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양입니다. 때문에 인간 개조는 계급 투쟁입니다. 당 중앙 위원회와 수령께서는 우리 선동원들에게 이 엄숙한 전투 명령을 내렸습니다…³¹⁾

한편, 량승춘은 점차 자신의 일에 흥미를 잃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일에 집중하지 않다가 결국 기계를 부수는 사고를 저지른다. 작업 조원들과 반원들은 량승춘 때문에 ‘천리마 칭호’도 받지

30)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전체 균중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의식 영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인민 대중을 세기적으로 물려받은 온갖 낡은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는 심각한 사상혁명”이라고 하며 그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김재하, 『현대성과 성격 탐구』,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4. 3, 91면 참고).

31) 리운영, 『진심』, 127면.

못하고 내일이면 마무리 될 '30일 돌격'도 실패할 것이라며 그를 비판한다. 그러나 량승춘은 이 모든 책임을 리주렬에게 전가한다. 게다가 직맹총회 때 자신을 개조하려는 리주렬의 노력을 '공명주의'로 몰아세우고 비난한다.

<…> 그는 날 소위 개조하자고 들었습니다. 날 개조하여 공명을 채우려고 하다가 사고로 해서 그것이 허물리자 본성이 벌거벗고 드러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더러 락후한 짓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개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불쾌합니다. 난 원쑤에게 부모를 뺏긴 사람입니다. 조국에 위험이 닥치면 나도 총을 들 결심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수를 희망한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난 모욕을 당한 이 직장에 더 있을 수 없으니 딴 직장으로 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날 모욕한 리 주렬 동무에게 응당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³²⁾

리주렬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자괴감, 량승춘을 개조하는 데 실패한 부끄러움, 량승춘에 대한 배신감으로 또 한 번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량승춘을 개조하는 일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정당하고 바람직한 과정이었다. 따라서 그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기로 결심한다. 우선, 리주렬은 량승춘이 전쟁 때 헤어진 누나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누나를 만나게 된다면 량승춘도 변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과 달리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는 량승춘에게 진심 어린 비판을 하는 한편, 그가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비밀리에 그의 누나를 찾는 작업을 계속했다.

승춘아, 우리 공장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로 가는데 너만, 단 너만은 못 가고 있다. 수백만 로동 계급이 모두 아름다운데 너만이, 단 너만이 추물이야. 네 부모님의 령혼이 있다면 네 낮쪽에 침을 뱉을 것이다. 땅 속에서 네 부모님들

32) 위의 글, 133면.

이 지금 슬프게 울고 있어.³³⁾

량승춘의 누나가 원산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리주렬은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원산에 있는 2백여 개의 인민반과 수천 세대의 집들을 모두 확인하고 다닌다. 이들 남매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의무’였으며 가족을 헤어지게 만든 ‘미제의 야수 같은 욕망을 짓부시는 통쾌한 투쟁’이었다. 그의 소문을 들은 지역 민청원들과 수천 명의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를 돕는다. 리주렬을 비롯한 전 사회가 량승춘을 위해 각자의 긍정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 선 것이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리주렬은 량승춘의 누나를 찾게 되고 남매는 10년 만에 상봉하게 된다. 또한 리주렬은 그들 남매에게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집도 내어 주겠다는 결심을 한다. 량승춘은 뒤늦게 그의 진심을 알고 자신도 그와 같이 공산주의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한다. 리주렬은 자신의 진심이 담긴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량승춘을 개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공산주의자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천리마 시기에 창작된 소설들을 중심으로 소설에서의 현대성과 천리마 기수의 전형 창조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8월 종파사건’의 과정에서 시작된 천리마 운동은 한국전쟁 직후의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고 사상적 무장을 강화함으로써 김일성 유일사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상징적인 운동이었다. 천리마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산주의의 건설에 있었고 모든 인민들은 투철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채 천리마의 기세로 달려

33) 위의 글, 135면.

나가야만 했다.

이 시기 당에서는 작가들에게 현지 파견 사업이나 인민들과의 연계를 통해 작품에서 현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성은 생활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포착되는 현실적인 주제를 예술적으로 일반화 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작가들은 당적 조건에 입각하여 천리마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그 안에서 기적을 만들어 내는 천리마 기수의 전형을 창조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앞서 살펴 본 작품들에서 천리마 기수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 형상화된다. 그들은 창조적 노동과 ‘속도전’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 투쟁의 전면에 나선다. 또한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경제 발전과 사상 혁명에 이바지한다. 당과 조국을 위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 천리마 기수들의 투지는 1930년대 김일성을 선두로 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정신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천리마 기수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당적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 이들의 모범적인 태도는 공산주의적 교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작품에서 천리마 기수들은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고 미래로 전진하는 시대의 전형으로 형상화된다.

주체시기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천리마 기수의 전형 창조는 인민들을 교양하여 수많은 천리마 기수를 배출해 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미 천리마 기수의 초인적인 능력과 ‘고상한 정신세계’가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 확정지어진 이상, 작가들의 현대성에 관한 고민과 도식주의에 대한 논의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기 힘들어졌다. 시대와 당이 필요로 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해야만 하는 인물을 전형화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들은 그들이 체험한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적을 만들어 내어야만 했고, 문학에서는 현대성을 가장한 비현실적인 일
상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권정웅, 『백일홍』,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9, 98~118면.
김병훈, 『《해주-하성》서 온 편지』,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0. 4, 29~56면.
리운영, 『진심』,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9, 124~140면.

2. 논문

- 강능수, 『우리 시대 주인공들에 대한 생각』,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6, 94면.
김 하, 『생활과 주제』,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4. 3, 79면.
김재하, 『현대성과 성격 탐구』,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4. 3, 91면.
로금석,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 창조와 작가의 시대적 감각』,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2. 1.
리상태,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탐구와 새로운 인간 성격의 창조』,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3, 130면.
——, 『생활과 낭만』,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2. 3.
박태민, 『단편소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작가적 노력』,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10, 101면, 104면, 105면.
방연승, 『천리마 기수의 형상화에서 거둔 몇 가지 문제점』,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3. 2.
안함광, 『천리마적 현실의 반영과 전형화의 특성』,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9, 175면.
엄호석, 『공산주의적 교양과 창작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59. 8, 114면.
——,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를 위하여』,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59. 11, 107면.
——, 『천리마 운동과 창작 정열』,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1, 86면, 87면.
——, 『생활의 요구의 높이에서』,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12, 100면.
편집부, 『4차 당 대회가 제시한 문학 예술의 강령적 과업』(권두언),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1. 10, 7면, 8면, 9면.
황 건, 『소설가의 립장에서』,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2. 12.

3. 단행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위음, 『북한 문화, 들이면서 하나인 문화』, 한울아카데미, 2006.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0.

류길재,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70면.

박중원·류만 공저, 『조선문학개관(하)』, 인동, 1988, 197면.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이명재 편,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1015면.

전영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역락, 2001, 124면.

Abstract

Modernity in Chollima Period Novels and Creation of the Archetype
of Chollima Movement Leaders

Kim, Jin-A

This study aims at discussing modernity in novels written in the Chollima movement period and examines the archetype of Chollima movement leaders. On November 27, 1960, Kim Il Sung ordered writers and artists to shape the features of Chollima movement leaders properly through an instruction "Create literature and art fit for the Chollima Period" Therefore, it was very important for the literature in that period to truthfully reflect the reality in the period and to create the archetype of Chollima movement leaders.

A prerequisite for shaping the Chollima leaders was to realize modernity. Modernity is premised on the true reflection of real life. Along with strong criticism against schematism, reflection of a rapidly changing reality in the Chollima movement period was continuously discussed throughout the period. Writers continued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actively participating in local secondment projects led by the communist party. Meanwhile, with the modernity issue being constantly raised, a lot of works based on true stories or commendable episodes were created during that period in North Korea.

In those works, Chollima leaders came to the forefront of a battle to construct a socialist society, creating miracles in every aspect of life. In addition, they played a role to revolutionary reform and cultivate the ideology of the people by fighting against various carryovers from the past. After all, Chollima movement leaders were depicted as positive example of the working labor class who do their best in their mission and communist archetype.

Key-words : Chollima movement, Chollima movement leader, modernity, archetype, schematism, positive example, human remolding, communist education

김진아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 (706-954)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메트로팰레스 505-1405

전화번호 : 010-9540-1067

전자우편 : lovefool15@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5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6월 7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6월 15일 게재 확정됨.